



보도	2025.3.28.(금) 석간	배포	2025.3.27.(목)		
담당부서	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	책임자	팀 장	김은성	(02-3145-8050)
		담당자	선 임	김태운	(02-3145-8052)

'25.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[잠정]

1. 개 요

□ '25.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(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)은 0.53%로 전월말(0.44%) 대비 0.09%p 상승 [전년 동월말(0.45%) 대비 0.08%p 상승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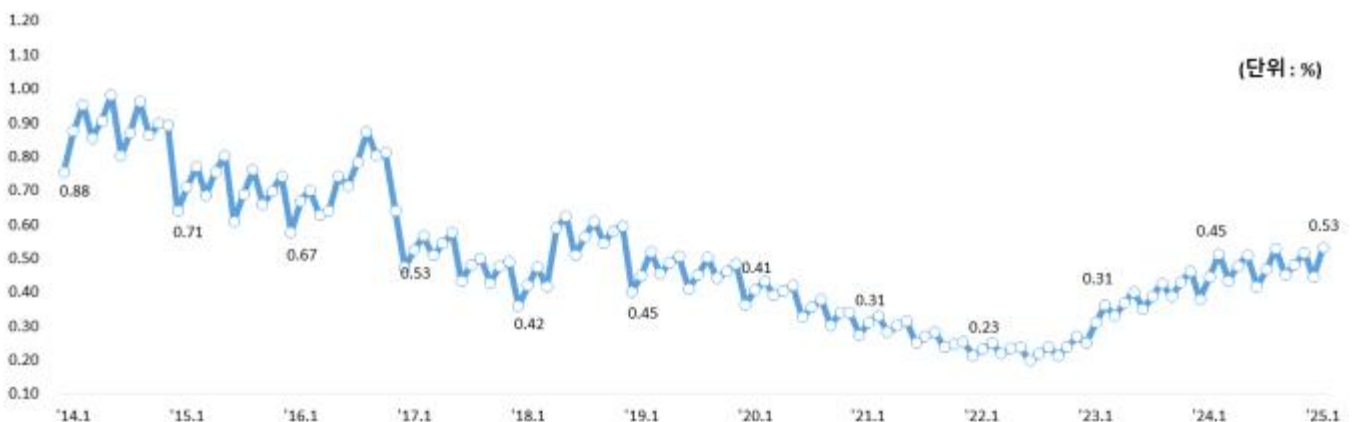
○ '25.1월중 신규연체 발생액*(3.2조원)은 전월(2.5조원) 대비 0.7조원 증가 하였으며, 연체채권 정리규모(1.0조원)는 전월(4.3조원) 대비 3.3조원 감소

	(23.1월)	(24.1월)	(24.8월)	(24.9월)	(24.10월)	(24.11월)	(24.12월)	(25.1월)
* 신규 연체채권 규모(조원):	1.9	2.9	3.0	2.5	2.5	2.8	2.5	3.2
연체채권 정리규모(조원):	0.6	1.3	1.4	4.3	1.7	2.0	4.3	1.0
연체채권 증감규모(조원):	1.3	1.6	1.6	△1.8	0.8	0.8	△1.8	2.2

○ '25.1월중 신규연체율('25.1월중 신규연체 발생액/'24.12월말 대출잔액)은 0.13%로 전월(0.10%) 대비 0.03%p 상승 [전년 동월(0.13%)과 유사]

* 신규연체율(%): ('24.1) 0.13 → ('24.9) 0.10 → ('24.10) 0.11 → ('24.11) 0.12 → ('24.12) 0.10 → ('25.1) 0.13

원화대출 연체율 추이('13.12월~'25.1월)



※ 은행이 분기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, 연체율은 통상적으로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

2. 부문별 현황

- (기업대출) '25.1월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(0.61%)은 전월말(0.50%) 대비 0.11%p 상승 [전년 동월말(0.50%) 대비 0.11%p 상승]
- 대기기업대출 연체율(0.05%)은 전월말(0.03%)과 대비 0.02%p 상승 [전년 동월말(0.12%) 대비 0.07%p 하락]
 - 중소기업대출 연체율(0.77%)은 전월말(0.62%) 대비 0.15%p 상승 [전년 동월말(0.60%) 대비 0.17%p 상승]
 - 중소기업 연체율(0.82%)은 전월말(0.64%) 대비 0.18%p 상승 [전년 동월말(0.62%) 대비 0.20%p 상승]
 -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(0.70%)은 전월말(0.60%) 대비 0.10%p 상승 [전년 동월말(0.56%) 대비 0.14%p 상승]
- (가계대출) 가계대출 연체율(0.43%)은 전월말(0.38%) 대비 0.05%p 상승 [전년 동월말(0.38%) 대비 0.05%p 상승]
- 주택담보대출 연체율(0.29%)은 전월말(0.26%) 대비 0.03%p 상승 [전년 동월말(0.25%) 대비 0.04%p 상승]
 -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(신용대출 등)의 연체율(0.84%)은 전월말(0.74%) 대비 0.10%p 상승 [전년 동월말(0.74%) 대비 0.10%p 상승]

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

(단위 : %, %p)

구 분	연체율 시계열 (‘13.12월~’25.1월)	’23.1월	’24.1월 (A)	’24.10월	’24.11월	’24.12월 (B)	’25.1월 (C)	증감	
								전년동월 (C-A)	전월 (C-B)
기업대출		0.34	0.50	0.56	0.60	0.50	0.61	+0.11	+0.11
대기업		0.09	0.12	0.04	0.03	0.03	0.05	△0.07	+0.02
중소기업		0.39	0.60	0.70	0.75	0.62	0.77	+0.17	+0.15
중소법인		0.44	0.62	0.74	0.78	0.64	0.82	+0.20	+0.18
개인사업자		0.33	0.56	0.65	0.71	0.60	0.70	+0.14	+0.10
가계대출		0.28	0.38	0.38	0.41	0.38	0.43	+0.05	+0.05
주택담보대출		0.18	0.25	0.25	0.27	0.26	0.29	+0.04	+0.03
가계신용대출등		0.55	0.74	0.76	0.82	0.74	0.84	+0.10	+0.10
원화대출계		0.31	0.45	0.48	0.52	0.44	0.53	+0.08	+0.09

*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기준

3. 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

- '25.1월말 연체율(0.53%)은 연말 연체율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및 신규연체 발생 등으로 전월말 대비 0.09%p 상승

구분[% , %p]	'24.1	'24.2	'24.3	'24.4	'24.5	'24.6	'24.7	'24.8	'24.9	'24.10	'24.11	'24.12	'25.1
연체율	0.45	0.51	0.43	0.48	0.51	0.42	0.47	0.53	0.45	0.48	0.52	0.44	0.53
전월 변동	+0.07	+0.06	△0.08	+0.05	+0.03	△0.09	+0.05	+0.06	△0.08	+0.03	+0.04	△0.08	+0.09

※ 통상 분기·연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(상·매각 등) 강화로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며, 1월 연체율은 전년말 연체율 큰 폭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승

- 이는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(0.78%)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나 신규 연체율(0.13%p)이 전년동월(0.13%)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연체율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
- 금감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유도하는 한편,
- 개인사업자 등 연체우려 취약차주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해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할 예정